

# “우리 소는 등심 많이 나오게 해줘요”

### 농진청, 특정부위 발달 맞춤형 개량시대 10대 분할육 유전평가기술 개발·제공

등심과 안심 등 특정 부위가 발달한 소를 생산할 수 있는 맞춤형 개량 시대가 왔다. 농촌진흥청은 한우 보증씨수소의 10대 분할육에 대한 유전평가 결과를 이달부터 농가에 제공한다. 한우보증씨수소는 전국 한우 암소에 정액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발한 우량 씨수소를 말하며, 한우 10대 분할육은 안심, 등심, 채끝, 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사태, 양지, 갈비 등을 일컫는다. 그간에는 도체중과 근내지방도 등 15개 형질을 이용해 한우를 생산했지만, 앞으로는 10대 분할육의 '중량'과 '비율(도체중 대비 분할육 중량의 비율)'을 더해 총 35개의 개량형질을 활용해 한우를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형질을 고려해 정액을 선택할 수 있어 농가의 정액출립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농가는 소비 경향에 맞춰 특정 부위가 발달한 한우고기를 생

산할 수 있고, 소비자도 수입 소고기와의 차별화된 한우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후대 검정우 후대 검정우(後代 檢定牛) 2,660마리를 24개월령에 도축해 10대 분할육의 중량과 비율, 유전력을 측정·분석했다. 그 결과, 중량 평균은 안심 6.0kg(비율 평균 1.8%), 등심 34.5kg(비율 평균 9.3%), 채끝 7.7kg(비율 평균 2.1%)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분할육의 유전력은 0.38~0.78 정도로, 기존 도체중(0.35)과 등심단면적(0.44), 근내지방도(0.56)가 잘 개량된 것에 비추 볼 때, 이른 시기에 개량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이번에 제공하는 씨수소 정액 중에 등심 중량 유전능력이 우수한 소의 정액을 활용하면 낮은 것을 활용했을 때보다 등심을 약 4kg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한우 보증씨수소의 10대 분할육에 대한 유전평가 결과를 이달부터 농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우 10대 분할육별 개량 과정은 국가 가족개량사업을 주관하는 국립축산식품부와 분할육별 조사를 실시한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와 협업으로 진행했다. 농촌진흥청 이상재 축산자원개발부장은 “10대 분할육 유전평가 기술 개발은 체중과 육질 위주 한우 개량에서 소비자의 부위별 선호 경향에 따라 맞춤형 개량이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한우의

다양한 개량형질을 발굴해 소비자 입맛향, 국내의 소고기 생산 환경에 맞출 수 있는 연구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부터 판매되는 보증씨수소 정액의 10대 분할육 유전평가 결과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aks.go.kr),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누리집(www.limc.co.kr) 씨수소 일람표)에서 볼 수 있다. /인재용 기자

## 우리동네 대피소 어플로 확인

### 을지훈련 맞아 'LX토지알림' 재조명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자체 개발해 무상배포 하고 있는 LX토지알림 앱이 을지훈련을 맞아 재 조명받고 있다. 을지훈련이 최근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는 데다 이와 함께 예정된 민방위 훈련은 23일 오후로 돼 있지만 주민들 대부분은 지하보도나 지하대피소 등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사는 이럴 경우 'LX토지알림'을 활용하면 가장 가까운 대피소정보의 위치와 경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LX토지알림' 앱은 스마트폰의 GPS와 국가지점번호, 국토정보기반도 등의 공간정보를 활용해 대피소 정보는 물론 약국,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위치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올해 원클릭 응급상황 위치전송 서비스 기능을 추가해 조난이나 교통사고 등 위급 상황에서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119혹은 지정해 둔 전화번호로 전송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편의성이 강화됐다. 이로 인해 등산이나 낚시 등의 야외 활동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도 위치 파악과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기존에 탑재된 공시지가와 면적을 통한 지적측량수수료 안내 서비스, LX 1박2일 여행코스 등 생활 밀착형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한편 'LX토지알림'은 안드로이드의 play스토어와 아이폰의 앱 스토어에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알림' 등으로 검색하면 손쉽게 내려 받을 수 있다. /인재용 기자

## 전북 수출 4개월 연속 성장세... '숨통'

### 7월 무역동향 결과 전년 동월대비 0.9% 늘어

전북의 수출이 201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 발표에 따르면 전북의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0.9% 성장한 4억8,663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북의 수출은 사드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률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성장률이 낮아진 주요 원인은 전북 지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수출이 성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올 들어 강한 회복세를 보이던 '자동차 부품'의 수출마저 7월에 하락 반전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인조섬유의 수출관한지 변경으로 전체 수출 증가율이 5%가량 낮아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반면 농기계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80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 1월부터 무역통관 품목분류 체계가 일부 변경되면서 '농업용 트랙터'가 자동차에서 농기계로 지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7월 수출 대상국 1위는 전년 동월대비 44.7% 성장한 중국이 차지했으며 미국은 13.1%의 증가율을 보이며 선전했으나 중국에 밀려 3개월 만에 2위로 내려 앉았다. 그러나 4~6위 수출 대상국인 베트남(-15.2%), 인도(-7.8%), 호주(-28.3%)로의 수출이 나란히 감소하며 전북 전체 수출에 그늘을 드리웠다. 중국 수출은 '합성수지'(98.5%), '동제품'(39.6%), '종이제품'(533.9%) 등이 성장세를 주도했으며, 미국 수출은 전체 수출(7100만달러)의 거의 절반(비중 45.1%)을 차지하는 '농기계'(2100만달러), '철강 관 및 선'(1100만달러) 등 두 제품의 성장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전북 지역은 7월 기준, 우리나라 총 수출 중 1.00%의 비중으로 17개 광역 지자체 중 13위를 차지했다. 한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8.6% 증가한 3억 5,238만달러, 무역수지는 1억 3,425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김영준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장은 “전북의 수출이 4개월째 성장세를 이어갔다”며 “이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0개월 연속 성장했던 호황기 이후 5년 5개월 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성장률은 일부 대기업이 주도하던 당시보다 크게 낮지만, 지역에 뿌리를 둔 중기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수출 확대는 안정적인 지역경제 구축에 필수적인 만큼, 인내심을 갖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무역협회도 지역 중소기업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해외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걸림돌을 찾아내 치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 문 대통령 우표 2차 추가 발행 최초·1차 추가발행 전량매진

제19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집이 추가로 발행된다. 전북우정청은 기념우표집 최초 발행량(2만부)과 1차 추가제작 예약수량(1만2,000부)이 매진되면서, 구매를 원하는 민원이 쇄도해 추가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추가 발행 수량은 예약 접수한 수량만큼 제작하며, 1인 구매수량은 1부로 제한할 방침이다. 추가 발행 예약은 25일부터 28일까지이며, 총괄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으로 접수하면서 우표집 요금(2만3,000원)을 결제하면 된다. 예약 접수한 고객이 기념우표집을 받아 볼 수 있는 남은 예약 수량에 따라 달라지나 9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 전주농협, 미래 이끄는 인재육성 앞장

### 조합원 자녀 51명 장학금 전달 우수 대학생에 총 1억200만원

전주농협은 23일 농협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51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전주농협 조합원 자녀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으로, 총 1억 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업인 조합원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농촌사회 인재양성과 농협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갖고 국가의 동량이 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관심을 갖는 재목으

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학금수여식에 자녀와 함께 참석한 조합원에게는 “조합의 경영은 조합장 혼자만의 힘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 조합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기인 만큼 조합원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전주농협 사업이용에 최선을 다해,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농협은 1988년도 15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대상자 및 장학금을 증설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885명에게 18억19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은행, 을지연습 시설방호훈련 구슬땀

전북은행은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 중인 을지연습에서 본점 시설방호 훈련을 실시했다. 전북은행 자체 예비군 및 전주대대 합동으로 실시한 본점 시설방호 훈련은 2017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실시한 실제훈련으로 전면전 상황 발생 시 도대 전자금유지원을 실시하는 본점에 대한 시설방호 훈련 및 화생방전을 고려한 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을 주관한 전북은행 조성빈 중대장은 “을지연습을 맞아, 자체 예비

군과 지역 군부대와 연계된 훈련을 실시해 유사시 본점에 대한 시설방호를 실시하고 아울러 화생방 대응능력을 향상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7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 시 위기관리 및 전사전환절차 훈련 등을 위하여 전국에 있는 전 기관 및 중점관리업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정부주도로 실시한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